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농촌으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고구마를 수확하는 농부들의 일손을 돕는 일이었다. 체력에는 다들 자신이 있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두들 농사일이 처음이라 매우 서툴렀다.

농부 아저씨들은 매일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일했다. 농촌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척척 해내는 모습이 마치 마술 같았다.